"현대미술관 분원 유치 전략적 접근을"

동구청 주최 토론회서 이승권 교수 '한국화' 특화 제안
부지 두고 관·학 이견…문체부 대리 ACC 참석 '아쉬움'

국립현대미술관 분원의 '광주 동구' 유치를 위해 한국화의 고장인 '전남'의 특성을 살려 공모하는 등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난 15일 오후 광주 동구청사 6층 대회의실에선 동구청 주최, (사)광주연구소 주관으로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광주 동구 건립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김규원 한겨레 21 기자와 이민원 광주연구소 이사장이 각각 '국립미술관의 지방 분산 필요성과 국내외 사례', '국립현대미술관 광주분관의 필요성과 광주 동구 유치 방안'에 대해 주제발표한 뒤 열린 토론회에서 이승권 조선대학교 문화학과 교수는 '전략적 접근'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국립 아시아문화전당(ACC)이 있는 문화·창의도시 광주에 분원을 유치하겠다는 '당위성'은 있으나, 타 지역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것만 내세워선 안 될 일"이라며 "우리 지역에 어떤 이유로 와야 하는지 설득해야 하는 데 스페인 말라가가 '피카소의 고향'이란 전략을 펼쳐 미술관 유치에 성공한 것처럼 대한민국에서 한국화를 주장할 수 있는 지역이 '전남'인 특성을 놓치지 않고 살렸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기자와 이 이사장이 부지로 꼽은 ACC, 옛 신양파크 호텔, 조선대학교, 광주 서석·중앙초등학교의 적합성을 두곤 토론자 간 이견을 보였다.

학계(이승권 교수, 황재희 전남대학교 지역개발학과 교수)는 옛 신양파크 호텔 부지가 ACC와 떨어져 연계성이 부족하며 교통 등 편의성도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관(광주시, 동구)에서는 지하철 2호선 공사가 끝나면 도보로도 10-15분 내로 접근이 가능하고, 그 일대에 다양한 콘텐츠를 넣어 '문화·관광벨트'를 구축하면 접근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국립현대미술관 분원 광주 동구 유치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으나, 결정권이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직접 발걸음하지 않고 ACC에서 대리 참석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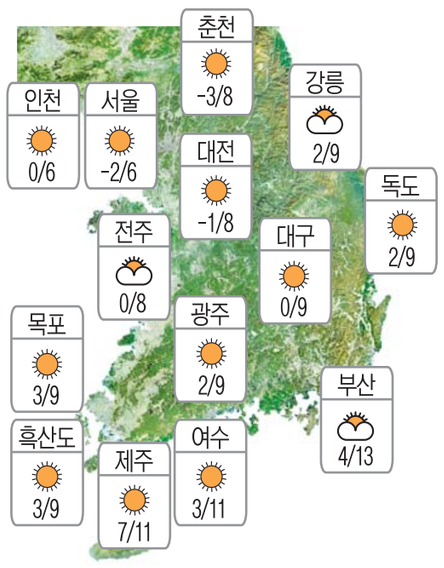
특히 문체부의 토론자 참석도 준비 단계에서 구상됐으나, 성사되진 않았다는 점도 아쉬움을 더하는 대목이다.

(사)광주연구소 관계자는 "아직은 (문체부) 직접 참여가 부담스러웠던 것 같다"며 "향후에도 토론회 등 국립현대미술관 분원 광주 유치를 위한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안재영 기자

오늘의 날씨

해뜸 07:10 해짐 17:25
달뜸 19:15 달짐 09:50



광주	맑음	2/9
목포	맑음	3/9
여수	맑음	3/11
나주	맑음	0/9
완도	맑음	3/11
구례	구름조금	-2/10
강진	맑음	2/9
해남	맑음	2/10
장성	구름조금	-2/8
보성	맑음	0/8
순천	맑음	1/11
영광	구름조금	0/8
진도	맑음	3/10
흑산도	맑음	3/9
고흥	맑음	1/11

●생활정보지수

나들이 80 일교차 주의해요 / 빨래 90 야외건조 좋아요 / 세차 90 세차하기 좋은날 / 운동 80 감기 조심해요

●바다 날씨

위치		오전/파고(m)	오후/파고(m)
서해남부	앞바다	1.5-3.5	1.5-3.5
	먼바다(북)	2.0-5.0	1.5-3.5
	먼바다(남)	2.0-5.0	1.5-3.5
남해서부	앞바다	1.0-2.0	1.0-2.0
	먼바다(동)	1.5-3.5	1.5-3.5
	먼바다(서)	2.0-4.0	2.0-4.0

●물때

지역	만조	간조
목포	03:12	08:28
	16:04	21:12
여수	10:40	03:58
	22:38	16:41
녹동	11:21	04:58
	23:13	18:00

●전국 날씨

날짜	광주	서울	강릉	대구	제주
11월 19일(화)	(1/13)	(0/9)	(3/13)	(0/13)	(8/16)
20일(수)	(5/13)	(2/11)	(5/14)	(3/13)	(12/15)
21일(목)	(5/15)	(6/13)	(7/15)	(4/14)	(12/17)

▶날씨안내 : 국번없이 131

道교육청 "산재 휴직 지원 강화"

전남도교육청은 17일 "산재 휴직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국 최초로 '산재 휴직자 지원 방안'을 취업규칙으로 법제화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기존에 산업재해로 인한 휴직자에게 최초 1년 동안은 공단이 지급하는 휴업급여에 추가 지원을 더해 휴직 전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 왔다.

이번 법제화로 산재 휴직자의 임금 보전 기간이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났으며, 재직 중 최대 6년까지 '생활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다.

특히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원 금액을 산정해 기존 임금 대비 약 20% 상향된 금액을 보전함으로써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이 강화됐다.

/김다이 기자

커피 향기 가득한 팜 파티 커피를 주제로한 팜 파티(farm party)가 지난 16일 담양 금성면의 커피농장에서 영농조합법인 주최로 열려 눈길을 끌었다. 이날 가족단위 참가자들은 커피 로스팅을 하고 다양한 관련 제품을 직접 만들어 맛보는 커피체험을 즐겼다.

/김애리 기자

전남교육청, '학교 중심 교육행정' 총력

'2025 교육지원청 주요 업무계획 협의회'…업무경감 방안 등 논의

전남도교육청이 학교 현장 업무 경감과 교육과정 지원 강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7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5일 도교육청 대회의실에서 '2025 교육지원청 주요 업무계획 수립 사전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 교육지원청이 학교 현장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난달 21일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간 간담회에서 논의된 교육지원청의 역할을 좀 더 세밀하게 살피며 현장 기반의 교육정책 수립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교육행정을 실현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됐다.

회의에는 교육감 및 국장, 각 실·과장, 22개 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44명이 참석해 2025년 전남교육 주요 업무계획 기본방향을 공유하고 업무 경감 및 특색교육 운영과 같은 현안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 ▲학교 업무 통합지원 협의체 구성 ▲각종 행사 또는 성과 나눔회 운영 방안 ▲특색교육의 통합 운영 내실화 등 심도있는 논의를 했다.

아울러 교육지원청의 역할을 보다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정립해 교육현장 중심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대중 도교육감은 "협의회를 통해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간 소통이 더욱 강화돼 교육 현장에서 교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학교가 교육과정 운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다이 기자

광주 학교 수업 나눔·공유의 장 열린다

市교육청, 내일부터 나흘간 '제2회 광주수업 페스티벌'

광주지역 유·초·중·고·특수학교의 수업나눔·공유의 장이 열린다.

17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19-22일 광주교육연수원에서 '제2회 광주수업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광주수업 페스티벌'은 시교육청이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교직원, 교육전문직원,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다양성을 품은 수업愛 담뿍 빠지다'를 주제로, 19-20일 유치원·초등학교, 21-22일 중 고 특수학교(급)가 특강 5강좌, 연수 10강좌, 사례공유 31영역, 부스체험 52영역을 운영한다.

특히 각 학교급별 전문성과 깊이 있는 배움의 장을 만들기 위해 올해 수업 내실화를 위해 추진한 활동 결과와 교수·학습 방법을 공유한다. 또 AI에듀테크를 활용한 수업 전시-체험-사례나눔, 현장 교사 주도 교과 아카데미, 교과 연구회 등 성과 발표도 진행한다.

이정선 시교육감은 "현장 교사들의 전문성과 노하우가 광주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을 이끌어 광주교육이 더 크게 도약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다이 기자

광주매일신문 전통시장활성화 연중캠페인

"전통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일어납니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 깃든 '전통시장'이 장기화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겪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편리한 유통시설이 들어서면서 '전통시장'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갑니다.
하지만 '전통시장'은 여전히 지역경제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들에게는 다양한 상품을 싸게 살 수 있는 현장이면서 인정을 나눌 수 있는 공간입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은 시·도민들의 지혜를 모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중 캠페인을 펼치겠습니다.

정겨움이 느껴지는 숲속장터

담양시장

담양지역 상업의 시발점인 담양시장은 그 역사가 신라시대 때부터라는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는 유서 깊은 시장입니다.
또한 천연기념물 제 366호인 관방제림의 연속선상에 있으면서 200여년 이상 된
나무들과 함께 숨쉬고 있는 숲속장터이며, 시장점포 위쪽 제방위와 하천변엔 200여분 이상의 노점상인들
이 위치하여 정겨운 전통시장 분위기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 장이 서는 날 ⊙ 매달 2일, 7일로 끝나는 날

담양군내시장
대전시장 장날 : 매달 3일, 8일
청죽시장 장날 : 상시영업

주최 : 광주매일신문 · 광주매일TV 후원 : 담양군 문의 : 062)650-2099